

광주시 “시민이 함께 광주천 가꾸요”

시민참여형 광주천가꾸기 참여기관 15개소 모집

광주시가 시민이 자발적으로 광주천을 가꾸는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맑고 깨끗한 광주천 가꾸기 사업에 참여할 기관·기업·시민단체 15곳을 이달말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천 가꾸기는 동구 용산동부터 서구 치평동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12.2km 구간이다.

참여기관들은 분기별로 하천정

화활동, 꽃밭·꽃길 가꾸기, 수집 개선활동, 외래종 및 생태교란식물 제거, 불법행위 단속과 환경캠페인·교육 등의 활동을 펼친다.

현재 47개 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단체를 중심으로 다음달부터 정화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우수 참여단체와 기관에는 연말 표창 수여 등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도기 기자

광산구, 민간 협업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커피숍·편의점 등 32곳 추가 총 53개소...안전교육 추진

광산구가 고용노동부의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도한 민간형 이동노동자 휴게 쉼터를 올해 다양한 시설로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산구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달고나달리다 고단하면 나에게로 와’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 커피숍 21개소를 이동노동자 휴게 쉼터로 지정,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빅크커피’와 더불어 BGF 리테일 전남지역부도 손잡고 커피숍, 편의점 32개소를 신규 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광산구에선 총 53개 민간형 이동노동자 휴게 쉼터가 운영된다. 또 쉼터와 연계해 추진하는 안전, 복지 등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라이더유니온과 함께 광주지역 배달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을 높이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안전교육을 수료한 노동자에게는 안전용품을 지급한다.

/이동기 기자

서구, 자원순환가게 전체 동 확대 운영

자원순환관리사 148명 위촉...주민 주도 자원순환 실천

서구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자원순환가게를 18개 전체 동으로 확대 운영한다. 서구는 16일 오후 서구청 들불홀에서 자원순환관리사 148명을 위촉하고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했다.

자원순환가게는 주민들이 가져온 재활용품을 품목별 무게, 수량 등 책정기준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 또는 현물로 보상하며 자원순환관리사들이 주민들에게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는 자원순환 실천의 장이다.

서구는 지난해 농성1동, 치평동 등 9개 동에서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며 자원봉사자 자원순환관리사 81명을 위촉했고, 참여회원

수도 332명에서 631명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이뤘다.

자원순환가게에서 수거한 재활용품도 ▲투명페트병 약 1100만개 ▲알루미늄캔 약 7500kg ▲종이팩 약 3900kg ▲페컨전지 약 5만개 등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주민들에게 약 1100만원을 현금(포인트)으로 보상했다.

서구는 17일부터 매주 정해진 시간에 각 동에서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며 품목별 보상기준은 ▲투명페트병 개당 10원 ▲알루미늄캔 kg당 500원 ▲철캔 kg당 100원 ▲종이팩(우유팩) kg당 400원 등이다.

기타사항은 누리집이나 청소행정과(062-360-7362),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선주 기자

순천경찰-사회단체, 업무협약식 개최

사회단체 치안활동 참여 통한 안전·행복 순천 만들기



순천경찰서는 16일 순천시 주요 사회단체 5개 소속 대표와 치안활동의 참여와 협력을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순천경찰과 사회단체와의 업무협약식은 사회단체들에게 순천경찰의 각종 치안활동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유도해, 참여치안의 완성도를 높여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민주평통 자원회의 순천시협의회, 해병대 순

천마린클럽,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남동부지구, 국제 로타리 3610지구 3·4지역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총결집해 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에 발 벗고 나섰다.

16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매곡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관·단체 사업공유 설명회’가 열렸다. 소상공인 지원기관·단체 사업공유 설명회는 지원기관별 사업들을 소상공인 단체와 적극 공유해 경기

진도 맹골수도 올려퍼진 ‘참척의 고통’

“제발 엄마 꿈에 한 번 찾아와다오. 너무도 보고싶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오전 10시30분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세월호 침몰 현장.

해경 3015 경비함정(3000급)을 타고 참사 해역에 도착한 '0416단원고 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들은 무정한 바다를 바라보며 자식을 하늘로 먼저 보낸 참척(慘劫)의 고통을 토해냈다. 그렇게 '진인한 4월'은 또 다시 찾아왔다.

희생자 가족과 지인 37명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목포해경 전용 부두에서 경비함에 올랐다. 뱃길로 약 90km, 3시간을 꼬박 달려 10시 30분께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

정확히 10년 전 오늘, 깊은 바닷속 세월호가 가라앉은 자리에 놓인 노란색 '세월호 부표'는 흐르는 세월의 풍파를 견디지 못한 듯 녹이 짙게 슬어 있었다.

“우리의 시계는 그날에 멈췄지만, 선체 헬기착륙장 갑판에 올라 부표를 바라보는 유가족들의 눈에는 허망함과 처연함이 서렸다.

“선상 추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가까스로 눈물을 참던 이들은 추모

세월호 10주기...유가족 등 37명 침몰 해역 추모식

“우리는 언제쯤 세월호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오전 진도군 맹골수도에서 열린 선상추모식 도중 세월호 참사 유족이 참사 해역을 바라보며 오열하고 있다.

식이 시작되자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이어 가족들은 그날 희생된 단원과 250명의 단원과 학생들을 비롯해 304명의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명 한명 불렀다.

현화를 위해 저마다 국화꽃을 손에 쥔 유가족들은 선체 난간으로 모였

다. “보고싶다, 보고싶다. 너무도 보고싶다. 미안하다.”

미안함의 흐느낌과 함께 가족들의 손을 떠나 바다 위로 떨어진 국화꽃 수십송이 송이가 눈꽃처럼 가라앉았다.

문득 미처 피어보지도 못한 채 차디찬 바닷속에 가라앉은 어린 꽃송

이들이 떠올랐을까. 10년 전 세월호를 집어삼킨 야속한 바다 위에서 유가족들은 가슴 깊이 꼭꼭 눌러온 슬픔을 쏟아내고 말았다.

고통을 나누려는 듯 유가족들은 이내 서로를 부둥켜안고 울었다. 이들의 애끓는 울음, 통곡의 절규는 망망대해로 흩어져 되돌아오지 않았다.

선상추모식을 모두 마치고 경비함이 뱃머리를 돌릴 때도 유가족들은 노란색 부표만 하염없이 바라봤다. “엄마가 미안해. 또 올게.”

이미 젖은 대로 젖은 하얀 면장갑을 다시 눈가로 가져간 한 유가족은 매년 되풀이하는 약속을 다시 한 번 하면서 작별을 건넸다.

고 김빛나라(2학년3반)양의 아버지 김병원씨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날이 벌써 10년이 다 됐다”며 “아이들과 우리 부모들은 언제쯤 세월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잘못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고 책임자 처벌도 조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눈물 속에 살아가지 않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광주시교육청 ‘304명 희생자 기억하며 안전 사회 다짐’

세월호 10주기 추모행사...19일까지 계기교육 주간 운영



선언문에 다짐을 적고 있는 이정선 교육감.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행사를 열었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본청 1층 현관에서 이정선 교육감

을 비롯한 박지영 부교육감, 국·과장 등 본청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행사를 가졌다.

추모 행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직원들은 1층 현관에 마련된 ‘안전한 광주교육, 행복한 사회 만들기 실현 다짐 선언문’에 304명 희생자 이름을 한 명 한 명 붙이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선언문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공감하는 한편 온 마음을 다해 안전한 학교와 행복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자는 4개의 다짐으로 이뤄졌다.

이 교육감은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안전한 학교,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세월호를 포함한 계기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조선주 기자

전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급방식 변경

선불형 기프트카드→포인트 충전식으로...이달 지급

전남도는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던 행복바우처 지급 방식을 기존의 선불식 기프트카드 지급에서 본인 명의 카드에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방식은 매년 신규 제작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포인트 사용자들도 카드 발급을 위해 금융기관 방문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사용액·잔액·사용 가능 가맹점 조회 등이 어렵다는 애로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협전남본부와 협력해 변경키로 했다.

사용액, 잔액 등 알뜰 문자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행복바우처 대상자는 지난 2월까지 접수를 받아 선정됐으며, 이달 말 총 8만4000명에게 1차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포인트는 올해 말까지 문화, 스포츠, 음식점 등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업소, 병원, 약국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 호 기자

북구, 소상공인 지원기관·단체와 역량 결집 ‘경제위기 극복’

중기청·소상공인진흥공단·소상공연합 협력...지원정책 공유

북구가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기관·단체와 함께 가용 가능한 역량을 총결집해 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에 발 벗고 나섰다.

16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매곡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관·단체 사업공유 설명회’가 열렸다. 소상공인 지원기관·단체 사업공유 설명회는 지원기관별 사업들을 소상공인 단체와 적극 공유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각자의 여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돕고자 북구가 지역 소상공인 유관기관과 협업체를 마련했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북구청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시 및 5개 자치구별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

인 지원사업 안내, 참여자 간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설명회에서 안내된 지원정책은 소상공인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정책 자금 지원을 비롯해 중앙·지방 등 9개 지원기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총망라되어 소개됐다.

또한 북구는 앞서 지난 3월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기관·단체 등과 구축한 유기적 소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각종 지원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 홍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동기 기자

조선이공대 소운동장에 140m ‘황토 맨발 길’ 개장

동구는 조선이공대학교 소운동장에 주민 건강을 위한 ‘황토 맨발 길’을 조성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개장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황토 맨발 길’은 지난해 동구와 조선이공대학교 간 컨소시엄 구성으로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지역사회 공헌사업의 하나로 조성됐다.

양질의 황토로 만들어진 ‘황토 맨발 길’은 길이 140m, 폭 1.5m 규모다. 세족장과 다양한 운동기구 등 건강 편의시설도 함께 갖추고 있어 안전과 편의성을 높였으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동구 역시 주민 건강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건강한 맨발산책로’를 제공하고자 오는 6월까지 산수1공원과 남계소공원 2개소에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교육청, 지방공무원 101명 선발...19일까지 접수

광주교육청은 2024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 10개 직렬 101명을 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직렬별 채용 인원은 ▲교육행정 91명(일반 85·장애 4·저소득 2) ▲전산 3명 ▲사서 1명 ▲공업일반(전기) 1명 ▲식품위생 1명 ▲시설(건축) 2명 ▲운전 2명(일반 1·보훈청 추천 1)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이다. 원서접수는 온라인교직원 채용 누리집에서 24시간 진행된다. 다만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광주교육청 및 온라인교직원 채용 누리집의 공고문과 응시원서 접수요령 안내자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5월 2일까지이다.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6월 22일 필기시험 장소는 5월 30일 누리집에 공고, 7월 22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8월 9일 면접시험을 거쳐 8월 2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